

서울대 공신(工神), 그들은 누구인가?

이혜정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이러닝지원부 연구교수

홍영일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이러닝지원부 연구원

1. TV 드라마 ‘공부의 신’ 신드롬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 학생들에 비해 뒤쳐진 미국 학생들의 과학, 수학 능력 향상을 위한 ‘혁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착수 방침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국의 교육열을 언급한 바 있다(연합뉴스, 2009). 이처럼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매우 높은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을 당연시하며, 중국, 일본 등도 비슷하긴 하지만 치열한 입시경쟁의 교육문화 속에서 사교육비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부 잘하는 비법에 대해 소개하는 도서나 드라마, 또는 언론매체의 인터뷰 보도자료 등이 마치 유행처럼 번지는 경향도 수 년간 지속되어오고 있다(강성태 외, 2007). 수 개월 전 공신돌(공부의 신 아이돌), 공드페인(공부 드라마 페인) 등 TV 드라마 ‘공부의 신’ 과 관련하여 인터넷 신조어가 탄생했다는 언론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공신들은 드라마 ‘공부의 신’ 에 등장하는 5명의 주인공을 일컫는 말이며, 서울대를 천하대로 표현하기도 한 이 드라마는 일순간에 공신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며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이러한 선풍적인 열기는 곧 우리나라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공부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대변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라는 화두가 출생하면서부터 직업을 가진 이후 평생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의 우선적인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하여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기, 유명 강사의 죽집게 강의 수강하기, 또는 서울대학교나 하버드 대학교 합격생의 공부 방법 따라하기 등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고, 다양한 공부법들을 여러 모습으로 가공하여 출판된 서적들이 불티나게 팔려왔다.

2. 고교시절 공신 vs. 서울대 공신

대학 입학 전에도 이미 반에서 1, 2등을 하는 학생과 3등을 하는 학생 사이에는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가 있다고들 한다. 반에서 3~10등에 속하는 상위권 학생들은 그 안에서 순위 변동이 역동적으로 일어나지만, 정작 1, 2등인 최상위권은 일년 내내 ‘고정’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 입학 후에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 즉, 학점 4.0 이상을 꾸준히 받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4.0 이상의 학점을 꾸준히 받아내지 못하는 상위권 학생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대부분 이미 고등학교 시절에 최상위권에 위치하여 상위권 학생들이 감히 넘겨보지 못할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유지했던 학생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고교시절의 최상위권들이 모인 집단 내에서도 또 다시 상위권이 쉽게 따라가지 못하는 최상위권 그룹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정해진 시험 범위 내의 주어진 공부만 하면 되었던 고교시절과 대학 이후의 고등교육에서의 학습은 우수한 성적을 내기 위한 요인에 있어서 적잖이 차이가 있다. 사람들은 때로 서울대학생은 공부 방법에 관한 모든 것을 꿰고 있다고 막연히 생각하며, 서울대생들 혹은 하버드학생들을 모두 공부의 달인으로 단정하곤 한다. 이들은 고등학교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올라온, 적어도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최상위권이었던 학생들이다. 즉, 공부라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잘 한다’는 소리를 듣고 성장한 집단인 것이다. 대한민국 상위 0.1%의 학생들로 볼 때, 학습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여 회상해 내는 수준의 인지적 능력은 이미 입학생 집단에 들어오는 순간 오차범위 내에서 동일하다고 간주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서울대에서도 취업을 앞두고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들 간에도 좋은 실력을 축적하여 사회로 진출하거나 대학원에 진학 또는 유학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못하여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거나 자아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들은 이미 고등학교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올라온, 적어도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최상위권이었던 학생들이었음에도 이러한 경쟁이 심화되어가면서 부적응자가 속출하게 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중등교육 과정에서 이러한 경쟁을 극복하여 대학에 들어가면 마치 탈출이라도 한 듯하지만, 정작 대학에 들어가서도 대학 사회에서의 새로운 경쟁 속에서 여전히 부적응자는 나타나게 되며 또 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상위권 대학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매년 우울증, 자살 등의 사건이 보도되고 있다(장효임, 2009; 이희백, 김수동, 2002). 이처럼 다들 비슷한 능력을 지니고 있고, 다들 나름

열심히 하는 속에서 더 탁월하게 우수한 성적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는 인지적인 아이큐만으로 우수한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능력이 요구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서울대 공신, 그들은 누구인가?

학업성취도 측면에서는 이미 검증의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는 서울대 학생들 중에서도 서울대에서 다시 최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학생들은 일반 서울대생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대학이라는 독특한 환경에서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그러한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대학이 학생들의 성취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셋째, 이를 통해 대학에서도 높은 학업성취에 의지가 있는 서울대의 일반 학생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2008학년도 2학기과 2009학년도 1학기의 두 학기 모두 4.0 이상의 평점을 받은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인터뷰 내용으로부터 이들 최우수학습자들의 학습전략과 특성들을 추출하여 설문문항으로 개발한 후 서울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을 현재 3학년(의대는 본과 2학년) 재학 중인 학생들로 정한 것은 교양과 전공 수업을 고르게 경험하였을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3학년 재학생 전체의 약 5%에 해당하는 158명이 두 개 학기 연속 4.0 이상의 성적을 기록하였으며, 이들은 서울대 15개 단과대학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4.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특성을 찾아내기 위해 이들 중 45명을 심층 인터뷰하였고, 이들의 답변을 바탕으로 전체 학생 설문을 실시하였다.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성적최우수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학습전략, 태도, 성장환경 등을 묻는 102개의 설문문항을 개발하고 7명의 학습 분야 전문가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들 문항 중 크게 수업 전략, 시험 준비 전략, 리포트작성 전략, 팀프로젝트 수행 전략, 시간관리 전략,

사회적 관계 전략, 학점 및 공부에 대한 태도, 삶에 대한 태도, 가정환경 영역으로 분류되었으며 리커트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 기간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약 2주간 실시되었으며, 서울대 재학생 1213명이 응답하였고, 이 중 대학원생을 제외한 학부생 응답자는 1,111명이었다.

응답자의 학점은 4.0 이상, 3.5 ~ 4.0, 3.0 ~ 3.5, 2.5 ~ 3.0, 2.0 ~ 2.5, 2.0 미만으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문항(102문항 중 88 문항)에서 학점과의 유의한 상관관계 (Pearson Correlation)를 보였으며, 이들 문항을 중심으로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문응답 예시〉



5.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학점이 높은 학생일수록 공부할 때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스스로를 재촉하는 뚜렷한 경향을 보였다. 학점이 높을수록 철저한 시간관리, 그날 계획은 그날에 마무리하는 등 계획한 일정에 따라 생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4.0 이상의 성적 최우수자들은 할 일이 있을 때는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만남 제의가 있어도 빠진다고 응답함으로써 외부적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목표와 계획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특성은 수업에 임하는 자세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가령 학점이 높을수록 재미없는 수업에서도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수업시간에 모르는 내용은 최대한 완전히(100%) 소화하려고 노력함과 동시에 모르는 것은 반드시 그날 해결하고 넘어간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시험 준비 모습에서도 연결된다. 시험 준비와 관련하여 학점이 높을수록 평소에 준비해두고 시험 전까지 학습내용을 수차례 반복하여 완벽하게 암기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학점이 낮을수록 벼락치기를 한다는 뚜렷한 경향을 보여주어 학점에 따라 대비되는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듯 학점이 높을수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모습은 리포트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과제 마감 한참 전부터 고민하고 준비하는 모습에서 충실한 자료수집, 주제선정을 위한 심사숙고의 과정, 과제 제

출 전 여러 차례 거치는 수정과정으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학점이 높을수록 이들은 어떻게 쓰면 좋은 점수를 받을지를 스스로 안다고 대답하였다.

수업, 시험 준비, 리포트 작성이 전적으로 개인의 노력이 요구되는 활동이라면 팀프로젝트 수행과 같이 여러 사람의 협조가 요구되는 활동이다. 학점이 높을수록 팀프로젝트 수행시 주로 팀 리더의 역할을 하며 과제의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편이라고 응답하는 경향을 보여줌으로써 협동학습 과정에서 보다 책임 있는 활동을 수행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팀원 간 의견조율에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결과물의 질을 높이기 위해 팀원 간 역할분담 후 나중에 스스로 마무리 작업을 충실히 다시 한다고 응답함으로써 협동을 이끌어내기보다는 개인 스스로의 노력에 보다 의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부와 학점, 삶에 대한 태도는 학점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일까? 학점이 높은 학생일수록 이들은 스스로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학점이 나빴을 때 학점이 낮은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자존감이 상하며, 하루를 반성하면서 실천하지 못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다음에 성공시키려 노력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학점이 높은 이들은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은 의지가 강하며 대학공부가 재미있고 대학생활에 만족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응답 내용이 기존의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에 비하여 성장배경과 관련한 설문에서는 새로운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릴 때 가족과 책을 읽고 대화한 경험이 도움이 되었는데, 특히 아빠보다 엄마의 지적 자극이 서울대 학생들의 학점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엄마가 학원 선정이나 학습 스케줄 등을 세심하게 관리해주었던 학생일수록 대학에서의 성적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점이 낮은 학생일수록 성적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부담스러웠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모님들이 자신의 공부 및 삶의 태도에 모범이 되었다고 응답함으로써, 결국 부모의 영향이 적지 않게 이들의 공부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앞서 학점이 높은 학생들의 시간관리, 수업, 리포트 작성 등의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스스로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 하루 일과를 보내는 습관의 형성이 어렸을 적에 가정으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대에서 높은 수준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세간에 잘 알려진 목표설정, 시간관리 등과 같은 노력이 여전히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서울대생이면 이미 고등학교 때 이런 요인들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노력과 행동을 보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들어와서 또다시 이러한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공부와 학점 및 삶에 대한 태도 측면의 설문문항에서도 확인되었듯이, 학점과 자신의 의지력, 학점과 대 학생활 만족도 간에 유의한 상관을 보임으로써 태도가 어느 정도 학점 취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수업, 리포트 작성, 시험 준비 등의 평소 습관에 대한 설문에서는 뚜렷한 학습전략 활동수준의 차이가 이러한 학점 취득의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학습전략, 태도 및 성장배경과 같은 환경요인과 학업성취도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학업성취도와 관련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대학에서 지금까지 실시해오던 기존의 학습법 워크숍의 프로그램들은 리포트 작성 워크숍 등 글쓰기 역량에 치우쳐있거나, 신입생 중심의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학업성취도와 상관이 있는 다양한 학습전략 요인들 및 태도 요인들을 추가적으로 반영한 학습법 프로그램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 결과 자체만으로도 서울대 일반 학생들이 성적최우수자들의 학업관련 생활 습관 및 태도와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높은 학업성취 의지가 있는 학생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대학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학습법 프로그램들이 전문가들의 메타학습 인지전략과 저명 교수들의 인생 경험으로부터 나온 학습전략 등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 동시대 동료 및 가까운 학우들의 최우수학습전략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과 최근의 교육 화두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그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동료 학습자들 중 우수한 성적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최우수학습자들의 학습전략, 과제수행 전략, 태도, 사회적·정서적 요인 등을 확인하고 공유함으로써 여러 많은 학생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학습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대학교육에서 학습의 질을 한층 더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연합뉴스(2009, 11.24). 오바마, 한국 부모 '교육열' 소개 - "한국 40여년간 엄청난 성장...교육정책에 관심" 황재훈 워싱턴 특파원 jh@yna.co.kr
 강성태 외 (2007). 공부의 神 : 공신들의 공부법. 서울: 중앙M7B.
 장효임(2009).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부적응간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신념의 매개효과.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희백 · 김수동 (2002). 제4주제 발표 : 대학생의 학교 부적응 실태와 대안. 한국교육포럼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교육포럼(아시아태평양교육학회).

학습법 시리즈 2탄: 프레젠테이션 Week

[대 상] 서울대학교 학부생
 [신 청] 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http://ctl.snu.ac.kr>)
 [일 시] 2010년 5월 마지막 주(24일~28일)
 [장 소] 교수학습개발센터(61동) 320호, 316호, 301호

| 일 시 | | 강연명 |
|-----------|-------------|--|
| 5월 18일(화) | 18:00~20:00 | 제1회 서울대-매경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평가회(세미나) |
| 5월 24일(월) | 14:00~18:00 | 프레젠테이션 기획 및 운영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메시지 구조화 기법 |
| 5월 25일(화) | 14:00~15:30 | 명강사에게 듣는 설득력 있는 프레젠테이션 |
| 5월 26일(수) | 14:00~18:00 | 파워포인트 2007 제작 실습(기초) 파워포인트 2007 제작 실습(중급) |
| 5월 27일(목) | 10:00~12:30 | 동영상 편집을 위한 무비메이커 |
| 5월 27일(목) | 13:30~16:00 | 이미지 편집을 위한 포토샵 |
| 5월 27일(목) | 16:00~18:00 | 프레젠테이션 모의 실습 |
| 5월 28일(금) | 14:00~18:00 |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법 마음을 사로잡는 파워 스피치 |